

일본의 미래를 밝히는 지성의 산실

지역특성 살리는 일본 대학출판부... 디지털시대 변혁도 고민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일본의 대학출판부는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라는 세가지 대학 기능의 접점인 출판활동을 통해 학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급 학술서의 간행, 양질의 대학교재 발간,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계몽·교양서의 출판 등이 대학출판부의 고유명제다. 이는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업출판사와의 차별성을 의미한다.

각 대학마다 특성 있는 분야의 전문서 발행

지난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대학출판부협회(간사장 야마시타 타다시 동경대학출판회 전무이사) 회원사가 발행한 출판종수는 1만 776종이며, 대학출판부 총발행종수는 2만여종을 상회한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장르별로 보면 사회과학이 1423종(38.8%)을 발행해 단연 앞서며, 역사·지리, 자연과학, 철학·심리·종교 등의 순으로 각각 10% 이상의 점유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31종(CD-ROM판 2종 제외)이 발행되어 일본 전체 신간도서 6만 2336종 가운데 1.2%를 차지했는데, 대학출판부에서 간행 비중이 높은 네 분야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2~3%로 높아져 학술출판에 공헌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출판부의 연간 총매출 규모는 75억엔 정도로 지난해 일본 도서시장(1조 730억엔)의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일반 출판사에서는 외면하는 학술 출판영역에서의 대학출판부 역할은 막중하고도 불가결하다. 대부분의 대학출판부는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형태로 조직돼 있어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대학마다 출판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출판부가 없는 대학에서는 일반 출판사의 도서를 교재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수가 준비한 소량부수의 경인쇄판이나 복사물 교재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대학출판부에서는 일반 독자를 위한 다양한 공개강좌 시리즈의 간행이 매우 활발하다. 잡지를 간행하는 대학도 여러 곳 있다. 게이오대학의 <교육과 의학>, 다마가와대학의 <전인교육>, 교토대학의 <아루케>(철학) 등은 학술지이며, 와세다대학에서는 유력 문예지로 성장한 <와세다문학>을 발행한다.

지방대학의 경우 종합 학술출판을 지향하

일본의 대학출판계는 정보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이 호기라

생각하고 있다. 학술출판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지만, 아카데미즘의

껍질을 벗고 깊이 있는 현실의

저류를 관통하는 출판활동이

향후 대학출판부의 나아갈

길이라는 목소리다.

면서, 동시에 지역색을 반영한 향토사·지역 문화 연구서, 사진집·도감 등 특성 있는 목록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유력한 출판사로 뿌리내리고 있다. 나고야대학과 규슈대학은 인근 대학들이 가맹하여 연합출판부 형식으로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다.

도쿄대학출판회는 제학문 분야에 걸친 학술서를 축으로 연평균 180종의 다양한 신간을 발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일본 대학출판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시리즈물로는 <교양강좌>, <강좌 일본역사>, <동양총서>, <미학강좌>, <인지과학선서(選書)>, <일본여성사>, <현대정치학총서>, <물리공학실험 시리즈>, <원자력공학 시리즈>, 기타 사료 및 고문서 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출판 여부의 결정은 전공교수가 참여한 회의에서 원고의 학술적 가치 등을 따져 결정한다. 정가는 3년을 기준으로 1쇄의 예상 판매부수를 산출하여 적자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산정하므로 2쇄 이후에는 거의 흑자가 된다.

게이오대학출판회는 인문·사회과학 등의 기초 학술분야의 출판물을 중점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도카이대학출판회는 자연과학 분야, 특히 해양 관계의 책을 주로 출판한다. 호세대학출판국은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종합 학술출판을 지향하고 있는데, 주요 간행물로는 해외 주요 저작을 소개하는 <우니베르시타스 총서>(580권) 및 <리브라리아 선서> 등이 꼽힌다. 와세다대학출판부는 대학강의록 출판으로 시작한 이래 <와세다대학 소장자료 영인총서>, <와세다선서> 등 학술적으로 비중 있는 시리즈물을 속간하고 있으며, 비디오판 <일본건축 화상(畫像)대

일본 대학출판부협회 정회원(20개교) 현황

명 칭	설립연월	조직 형태	직원수(명)	총 출판종수(종)	'97년 출판종수(종)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도서간행회	1970. 12	재단법인	7	381	24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 출판회	1991. 4	학교법인	4	20	3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출판회	1947. 11	주식회사	50	528	28
산노(産能)대학 출판부	1965. 3	주식회사	20	1,432	52
센슈(専修)대학 출판국	1973. 10	주식회사	8	97	10
다마가와(玉川)대학 출판부	1923. 4	학교법인	13	1,535	35
주요(中央)대학 출판부	1948. 11	학교법인	8	512	12
도카이(東海)대학 출판회	1962. 4	학교법인	21	1,436	36
도쿄(東京)대학 출판회	1951. 3	재단법인	64	4,867	163
도쿄덴키(東京電機)대학 출판국	1907. 9	학교법인	11	1,755	45
도쿄노교(東京農業)대학 출판회	1948. 5	재단법인	3	183	3
호세(法政)대학 출판국	1948. 12	재단법인	11	2,072	72
호소(放送)대학 교육진흥회	1984. 4	재단법인	5	1,051	75
메세(明星)대학 출판부	1975. 7	주식회사	6	161	2
와세다(早稻田)대학 출판부	1886. 10	주식회사	8	1,941	41
나고야(名古屋)대학 출판회	1982. 6	재단법인	7	336	31
교토(京都)대학 학술출판회	1989. 7	임의단체	6	60	20
오사카(大阪)경제법과대학 출판부	1987. 9	학교법인	6	73	9
간사이(關西)대학 출판부	1947. 6	학교법인	6	245	15
규슈(九州)대학 출판회	1975. 3	재단법인	7	515	46

* 총출판종수 : 설립 이후 '97년 말까지의 발행종수.

자료 : ① 일본 출판과학연구소, <出版月報> 1997년 8월호. ② 출판뉴스사, <日本の出版社1998>. ③ 일본 대학출판부협회, <1998新刊圖書目録>.

계》(전9권)도 이채롭다. 다마가와대학출판부는 <다마가와 어린이백과>(전100권), <세계교육보전(寶典)>(전48권) 등의 백과사전 및 교육 관련서를 간행하여 아동교육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산노 대학출판부는 경영 전문서와 일반 비즈니스 서 등을 발행하고 있다.

판매력 강화가 향후 과제

이외에도 세이가쿠인대학출판회는 기독교 관련서, 주요대학출판부는 법률서, 도쿄덴키 대학출판국은 전기공학 등의 이공학 전문서 발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도쿄노교대학출판회는 농업 관련서, 호소대학교육진흥회는 방송대학의 교재출판, 메세대학출판부는 교육 관련서, 규슈대학출판회는 정치·경제 관련서를 발행하여 성가를 올리고 있다.

오늘날 일본 대학들은 연구기능 중심의 대학원 중심형, 교육기능 중심의 학부 중심형, 평생학습에 치중하는 사회봉사 중심형 등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학술출판 편집자의 부족에 따른 인재난과 도서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이 대

학출판부 발전의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한 교양서 발행에 힘을 쏟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채산성을 맞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학출판부의 사회적 위상에 비해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다. 또 일본 출판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앙케트 조사 결과 대다수의 대학출판부가 향후의 과제로 판매력 강화, 반품을 저하,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과 활자미디어의 융합 등을 꼽고 있어 일본 대학출판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학출판계에는 정보화·국제화·대학 개혁이 진행되는 오늘의 상황이 오히려 순수 학술출판의 발원지인 대학출판부의 진흥에 호기라는 의견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학출판부가 추구해야 할 학술출판은 변함없이 중요하지만, 아카데미즘의 껍질을 벗고 깊이 있게 현실의 저류를 관통하는 출판활동이 향후 대학출판부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출판부의 지구 노력과 함께 양서 출판을 위한 각종 출판지원정책, 독자층의 개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등이 시급하다고 대학출판인들은 입을 모은다. ◆